



## U-17 청소년 월드컵축구

-대회 2일째



아쉬운 南

지난 18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A조 1차전 페루와의 경기에서 0-1로 석패한 한국 선수들이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만족한 北

지난 18일 열린 2007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 개막전 북한과 잉글랜드의 경기에서 북한의 림철민이 후반 동점골을 넣은 뒤 기뻐하며 감동 앞으로 뛰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위기의 한국, 코스타리카 잡아라”

‘4강 신화’를 목표로 내건 청소년축구대표팀이 2007 국제축구연맹(FIFA) 17세이하(U17) 월드컵 개막전에서 남미의 복병 페루에 달미를 잡혀 16강 진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박경환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대표팀은 지난 18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전반 29분 페루의 카를로스 바살라르에게 헤딩골을 허용해 0-1로 무릎을 꿇었다. 홈 이점을 등에 업고 1983년 멕시코 U20 월드컵 4강, 2002년 한일월드컵 4강의 신화를 재현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진 박경환호로서는 충격적인 패배였다.

이 대회 본선에 두 번째 출전한 페루는 반드시 잡아야 할 상대였지만 볼의 패배를 당해 남은 코스타리카(21일·수원), 토고(24일·울산)전에서 부담을 떠안게 됐다. 특히 같은 A조에 속한 토고와 코스타리카

## 순발력 떨어지는 중앙수비 허점 노려야

### 1차전 복병 페루에 패…16강행 ‘빨간불’

가 1-1로 비기는 바람에 한국의 조별리그 통과는 더욱 힘들어졌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두 팀 모두 기량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인데 토고-코스타리카전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토고보다 코스타리카를 그나마 상대하기 쉬운 팀으로 꼽았다. 일단 코스타리카와 2차전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한국으로선 다행인 셈이다.

토고의 경우 다재로운 공격 전술 구사가 화려한 개인기와 아우러져 A조 최강으로 분석했다. 이에 반해 코스타리카는 투톱 공격

수를 묶은 뒤 순발력이 떨어지는 수비라인을 잘 공격하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신우 대한축구협회 기술국장은 “코스타리카는 전술의 이해도는 높은 것 같지만 공격에서 특징은 별로 없는 편이다. 더구나 중앙 수비수들의 순발력이 떨어져 우리가 베스트 컨디션을 뒀는다면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 코치인 지난 최진한 동북고 감독도 코스타리카 수비에 약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 감독은 “토고의 개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앙 수비가 빠르지 않고 1대1 방어도 약한 것 같다”며 “특히 오른쪽 풀백을 싣던 조던 스미스가 키는 184cm로 키만 순발력이 좋지않기 때문에 우리는 왼쪽 측면을 잘 공격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고쳐야 할 문제점도 지적했다.

최진한 감독은 미드필더에서 짧은 패스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때로는 공격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롱 패스가 부정확하다는 단점도 있지만 역습 시에는 길게 최전방 공격수에게 연결해주는 롱패스도 필요하다. 하지만 미드필더들이 너무 짧은 패스에만 의존하다 보니 역습에서 속도가 느려진다”고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나이지리아, 佛 끄다

## 이브라힘 결승골 2-1 승리

### 북한, 잉글랜드와 1-1 비겨

아프리카의 강호 나이지리아가 유럽의 자존심 프랑스를 꺾고 14년 만의 정상 도전을 향한 첫 걸음을 상쾌하게 내디뎠다.

원년 대회 우승팀 나이지리아는 19일 오후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펼쳐진 2007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 청소년월드컵(U-17)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2001년 대회 우승팀 프랑스를 2-1로 물리쳤다.

‘미리보는 결승전’이라고 불릴 만큼 이번 대회 유력한 우승후보로 꼽히는 두 팀의 대결에서 나이지리아가 먼저 웃었다.

나이지리아의 공격수 크리스찬투스는 전반 15분 킹 오상가의 찰라주기 패스를 이어받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슛을 날렸고, 골

키퍼의 선방에 막혀 흘러나오자 재빨리 뛰어들어 기어코 골을 만들어냈다.

반격에 나선 프랑스는 후반 5분 미드필드 지역 왼쪽에서 얻은 프리킥을 앙리 세베가 골문으로 차올린 불이 그대로 오른쪽 골로 빨려들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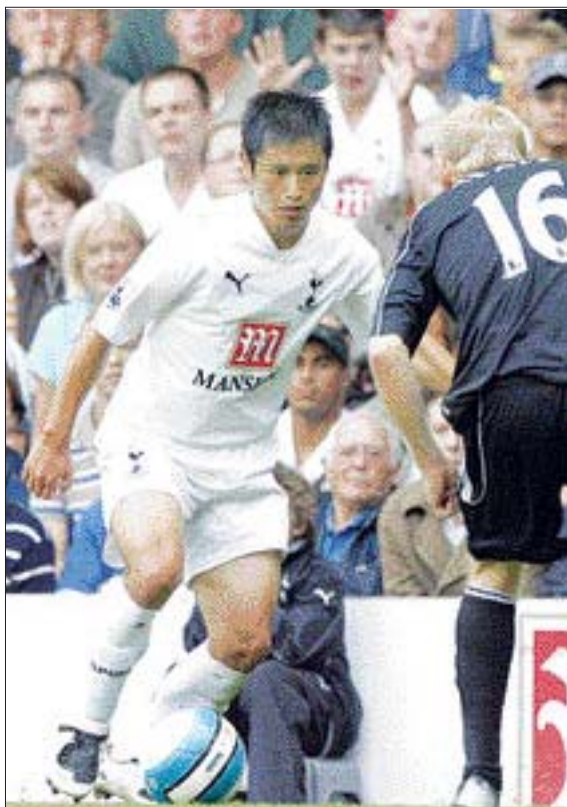
나이지리아는 그러나 후반 19분 이브라힘의 강력한 왼발 슛으로 승리를 결정지었다.

C조의 스페인은 같은시간 온두라스를 상대로 보안 크리키치와 호르티가 나란히 두 골씩 터트리는 맹활약 속에 4-2 대승을 거두면서 조별리그 첫 승리를 챙겼다.

한편 B조 북한은 지난 18일 열린 잉글랜드전에서 후반 17분 빅토르 모제스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44분 림철민이 동점골을 터트려 1-1로 비겼다.

같은 조의 대회 최다(3회) 우승팀 브라질은 뉴질랜드를 7-0으로 대파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토트넘의 이영표(왼쪽)가 19일 런던 화이트 하트레인 홈 구장에서 열린 더비카운티와 3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 드리블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기현(28·레딩)이 선발로 출전했고 이영표(30·토트넘)는 부상 이후 처음 나와 풀타임을 소화했다. 이동국(28·미들즈브러)도 후반 교체 출전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개막전 3인방이 모처럼 같은 시간에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다.

설기현은 19일 오전 영국 레딩 마데스키 스타디움에서 끝난 2007~2008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에버튼과 홈 경기에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나왔다.

설기현은 전반 5분과 7분, 18분, 후반 10분 오른발과 왼

## ■ 한국 프리미어리거 3인 출전

### 이영표 안정된 수비력…6점

### 설기현 허리통증 교체…6점

### 이동국 후반 교체 투입…5점

발로 번갈아 가며 크로스를 올렸지만 골 기회로 연결되진 못했다.

전반 24분엔 에버튼 공격수 미켈 아르테타의 볼을 빼앗아 스티븐 헨트에게 역습 찬스를 열어줬다.

설기현은 후반 25분 갑자기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그라운드에 쓰러져 존 오스터와 교체됐다. 레딩은 전반 44분 헨트의 결승골로 에버튼을 1-0으로 눌렀다.

프리미어리그 태극전사 만영 이영표는 런던 화이트 하트레인 홈 구장에서 열린 더비카운티와 3라운드 홈 경기에 왼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 토트넘의 연패 탈출을 도왔다.

이영표는 후반 한 차례 크로스를 올리며 공격에 가담했고 안정된 수비력을 보였다.

개막 2연패에 빠졌던 토트넘은 전반 2분과 6분 스티드 말브랑크의 벼락 연속골과 저메인 제나스, 대런 벤틀의 추가골로 더비카운티를 4-0으로 대파했다.

토트넘의 마틴 윌 감독은 경기 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영표가 왼쪽 측면에서 공격의 배출구 역할을 해냈다”며 “이영표의 안정된 경기운영으로 더비 카운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극찬했다.

이동국은 런던 크레이브코티지 경기장에서 열린 풀럼과 원정 경기에 후반 24분 호삼 아메드 미도 대신 교체 투



미들즈브러의 이동국이 19일 런던 크레이브코티지 경기장에서 열린 풀럼과 원정 경기에서 자리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입매 종료 직전 켄 하인스와 다시 교체돼 나올 때까지 20분 정도 출전했다. 이렇다할 슈팅 기회는 잡지 못했다.

미들즈브러는 0-1로 뒤지던 후반 10분 토트넘에서 영입해온 미도가 동점골을 뽑아내고 후반 43분 리 캐터몰이 역전골을 터트려 풀럼을 2-1로 꺾고 첫 승을 올렸다.

한편 잉글랜드 스포츠 전문 채널 ‘스카이스포츠’ 인터넷판은 19일 이날 2007~2008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가 끝난 뒤 매긴 선수별 평점에서 설기현과 이영표에게 각각 6점, 이동국에게 5점을 줬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상무, 대구FC 꺾고 시즌 2승

‘불사조’ 광주 상무가 대구 FC를 제물로 정규리그 2승째를 챙겼다.

광주는 지난 1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삼성 하우젠 K-리그 2007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남궁도, 이진호의 연속골로 전반 셀미르가 선제골을 뽑은 대구에 2-1 역전승을 거뒀다.

광주는 지난 6월16일 대전 시티즌에 1-0으로 이긴 이후 두 달여 만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골짜 탈출에 시동을 걸었다.

2승5무10패(승점 11)가 된 광주는 여전히 14위로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13위 부산 아이파크(승점 14)와 격차를 3으로 줄였다.

전반 25분 대구 용병 셀미르에게 선제골

을 내준 광주는 후반 3분 남궁도가 페널티킥 동점골을 뽑아내고 후반 39분 유현구가 골지역 왼쪽 엔드라인에서 올려준 볼을 울산 출신 공격수 이진호가 헤딩으로 꽂아넣어 역전 결승골을 터트렸다.

포항 스틸러스는 부산 원정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린 이광재의 수훈으로 부산에 2-1로 역전승했다.

후반 5분 부산 이진호에게 먼저 골을 내준 포항은 후반 27분 최태욱의 패스를 이광재가 꽂아 균형을 맞추고 3분 뒤 이광재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찰라준 패스를 신임 용병 조네스가 역전골로 마무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한국 5위…역대 두번째 좋은 성적

### 방콕 하계유니버시아드 폐막

2007 방콕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한국은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서 1년 뒤 베이징올림픽을 향한 희망을 밝게 했다.

한국은 18일 밤 폐막된 유니버시아드에서 금 15, 은 18, 동메달 18개를 획득해 메달 종합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

당초 금메달 10개 정도로 10위 안에 드는 것으로 정한 목표를 훌쩍 넘겼다.

2003년 대구대회에서 홈 경기 이점을 살려 3위(금 26, 은 11, 동 15)를 차지한 데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성적이다.

특히 금메달이 다양한 종목에서 나온 것은 고무적이다.

전통적 강세 종목인 태권도와 유도에는 물론 육상, 수영, 배드민턴, 사격, 펜싱 등에서 금빛 소식이 잇따랐다.

한국 여자 평영의 최강자 정슬기(19·연세대)와 육상 세단뛰기의 김덕현(25·조선대) 등 기초 종목의 금메달은 더욱 소중한 것이었다. 또 남자농구, 여자축구, 소프트볼 등 구기종목 대표팀은 짧은 패기를 앞세워 국제대회 경험을 알차게 쌓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